

【 국내금융 뉴스 】

'09년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 34% 상승

- '09년 상반기 보험사기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3.6% 상승한 1,46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비중은 자동차보험 67.6%(987억원),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15.2%(223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10.3%(150억원) 등의 순임.
 - 최근 보험사기 증가는 정부당국의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 특별 단속도 작용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무직·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5%(43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 23.9%(348억원), 운전자 바꿔치기 16.2%(23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후 우발적인 사기유형 비중(38.5%)은 전년동기대비 9.4%p 감소한 반면, 허위·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 비중(54.3%)은 9.7%p 증가함.
-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2,80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0%(6,969명)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이 87.1%(19,867명), 장기보험 6.7%(1,533명), 보장성보험 5.0%(1,145명)의 비중을 차지함.
 -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자동차 이용이 생활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로 지능화되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장성보험도 자기신체 자해, 진단서 위·변조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들의 연령대로는 40대가 57.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5.8%), 20대(19.9%), 50대(18.5%) 등의 순임.
- 금감원은 보험범죄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검·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해 보험범죄 근절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 8/21)